

□ 학내 스포츠시설 진단

떨 곳이 없다!

자유의 나라를 떨 곳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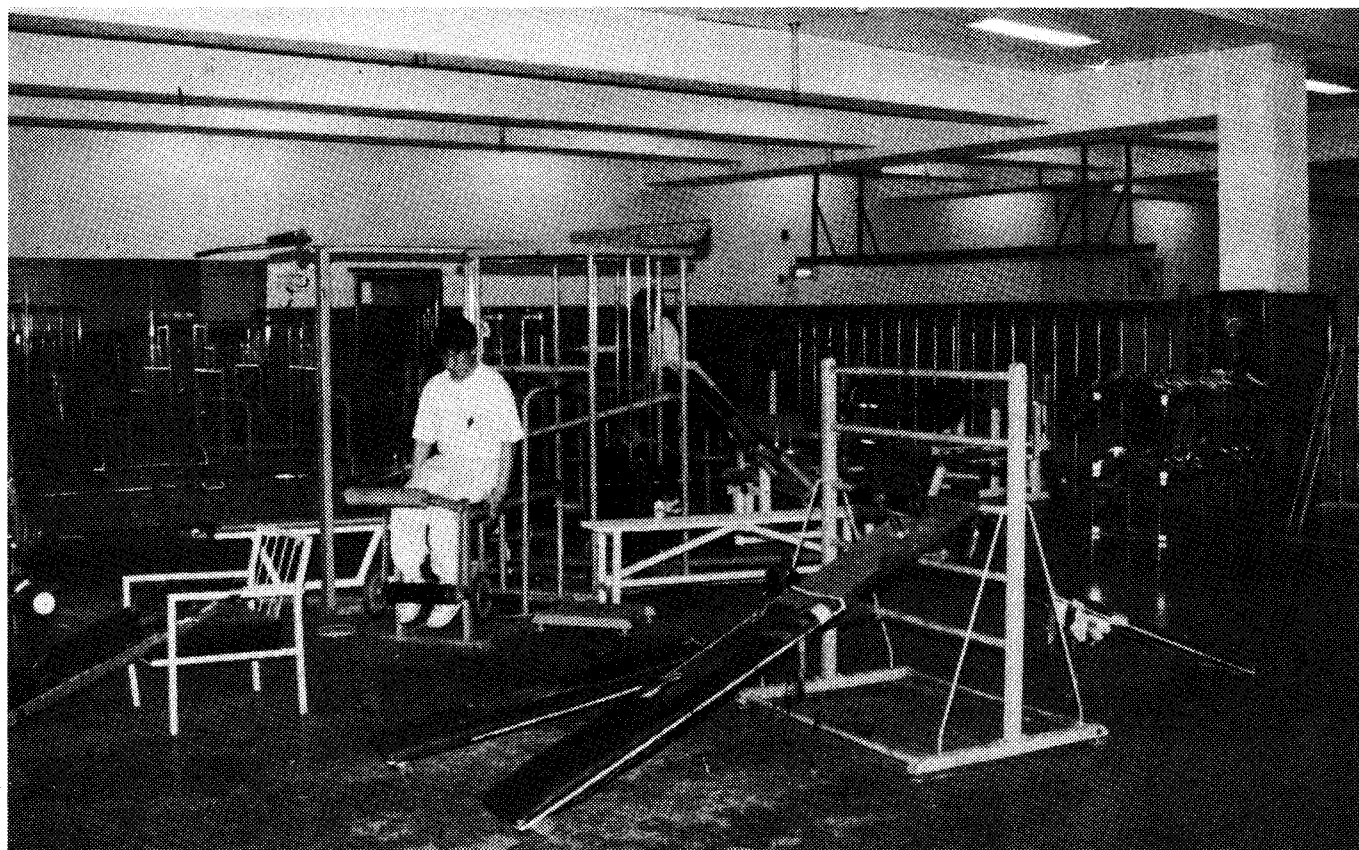
○... 대학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만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덕을 함양하고 체력을 ...○
○... 길러 준 사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학생들 ...○
○... 또한 억눌린 교육제도 하에서 벗어나 자유의 생활을 영위할 공간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
○...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떨' 흘리며 신체를 단련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
○...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우리신문은 학내에서 젊음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
○... 장소인 스포츠 시설에 대해 진단해 보았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

농구장의 합성. 경희대 농구단은 얼마전 마지막 농구대잔치에서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이루었다. 많은 땀과 노력으로 인한 자랑스런 결과였지만 우리학교의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4강 진출의 의미는 더욱 빛을 발한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최근 학생들은 아침 6시30분에 일어나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학교에 7시30분경에 도착하여 체육대학지하에 있는 수영장으로 향한다. 7시50분부터 한시간동안 수영강습을 받은 후 샤워실에서 샤워를 끝낸 뒤 상쾌한 마음으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방과후에도 역시 체육대학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1시간 정도 땀을 흘린다. 샤워는 역시 헬스후에도 기본이다. 빠르면 내년 신입생부터 실현 가능한 일들이다. 우리학교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아마추어정신을 바탕으로 한 체육명문대학으로 널리 알려져왔다. 물론 운동부뿐 아니라 학교체육시설 또한 명문임을 자랑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의 명성이 단지 허울좋은 명성에서 그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하. 예전에는 최고의 시설이었지만 시설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에 최고였던 체육시설은 이제 열악하기 그지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대운동장에 있는 농구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기에는 장소가 턱없이 좁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물론 학생들이 농구장 상단수가 농구장의 확장을 바라고 있지만 학교측에서는 공간부족을 이유로 농구장을 폐쇄한다.

또한 여름철에 운동을 한 후 땀을 닦지 않고 수업을 받게 되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샤워실과 화장실이 대운동장 서쪽 스탠드 뒤쪽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실외에 존재하는 유일한 샤워시설 관리의 소홀함과 학생들의 외면으로 휴식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과 시설담당 이성재주임은 "학생들이 홍보부족으로 이용자가 수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관



▲체육대학 지하에 위치한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몇몇 체육대학생이 운동을 하고 있다. 내년중에 개방되게 되면 일반학생은 물론 주민들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폐쇄된 대운동장 간이샤워시설 손질 필요

내년중 웨이트트레이닝장 전면 보수 예정

을 확충하지는 않고 있다. 문리대 영문과의 한 학생은 이에 대해 "대운동장에 위치한 농구장의 경우 정식경기 한번 뛰는 것은 엄두도 못낸다"면서 "간단한 경기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가능하다"

리가 소홀해졌다. 조만간 안내판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밝혔으며 간이 샤워장에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체육부에 요구해 협조문이 관리과로 발송될 경우 간이 샤워장을 개보수 하겠다"라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조잔디를 깔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으나 예산 문제로 부결된 대운동장의 배수시설도 관리가 미흡하여 배수시설의 확충과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체육과학대학원 정동진 행정과장은 작년과 올해 수영장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웨이트트레이닝장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내년엔 웨이트트레이닝장이 완공될 경우 약 50여 평 정도의 현 웨이트트레이닝장과 체조장 사이에 국내대학에서는 보기 힘든 최상장비로 설치되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의 신분으로는 5만원정도 하는 헬스장 회비를 내가며

운동의 하기가 쉽지 않으나, 앞으로는 학교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학교주변에 사는 학생 및 운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생활이 보다 스포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양대 체육부과장은 체육시설 비품관리에 대해 "일반학생들도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비품들을 대여해주며 실내농구코트도 개방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거의 불편이 없다"고 밝히며 우리학교의 비품대여 가능한 단체인 단대나 과별 신청시 대여해 주는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정과장은 "관리인력이 부족해 기구를 다루기가 어렵고 분실의 위험이 커서 웨이트트레이닝을 쉽게 개방할 수 없다"고 전했으며 "새로 개보수 할때는 인원을 확충해 안정성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수영장과 함께 앞으로 웨이트트레이닝장이 개장될 경우 실비로 누구나 쉽게 학교시설을 이용하며, 체육명문대학으로써 우리학교가 우뚝 서기를 고대한다.

<최현일 기자>

인터뷰

□ 체육과학대학원 정동진 행정과장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로

전격적인 개보수로 웨이트트레이닝장이 내년중에 새롭게 단장된다. 웨이트트레이닝장과, 교내 체육시설을 알아보고자 체육과학대학원 정동진행정과장을 만나 보았다.



일반학생들에게 웨이트트레이닝장을 개방할 계획인가
개방한다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수업시간에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조교없이 기구들을 개방할 경우 안전성과 분실에 대한 관리가 당장은 어렵다.

언제쯤에 개방이 가능한가
조직원총장의 권유로 작년 7월부터 개방한 수영장의 수익금을 웨이트트레이닝장에 투자해 내년중에 개보수 할 것이며 저렴한 회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개방하기에는 현 웨이트트레이닝장이 좁지 않은가
아니다. 현 위치에 앞쪽의 체조장까지 연결해 약50여평을 확보해 놓았으며 사방의 벽에는 거울을 부착할 것이다.

새로 지은 수영장의 운영상황 및 규모는
평일 아침은 6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저녁은 18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아침6시부터 9시까지 전문강사로

부터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수영장은 다섯개의 레인이며 실내에는 어느 스포츠센터에도 못지않을 정도이다. 농구코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 대운동장 농구골대도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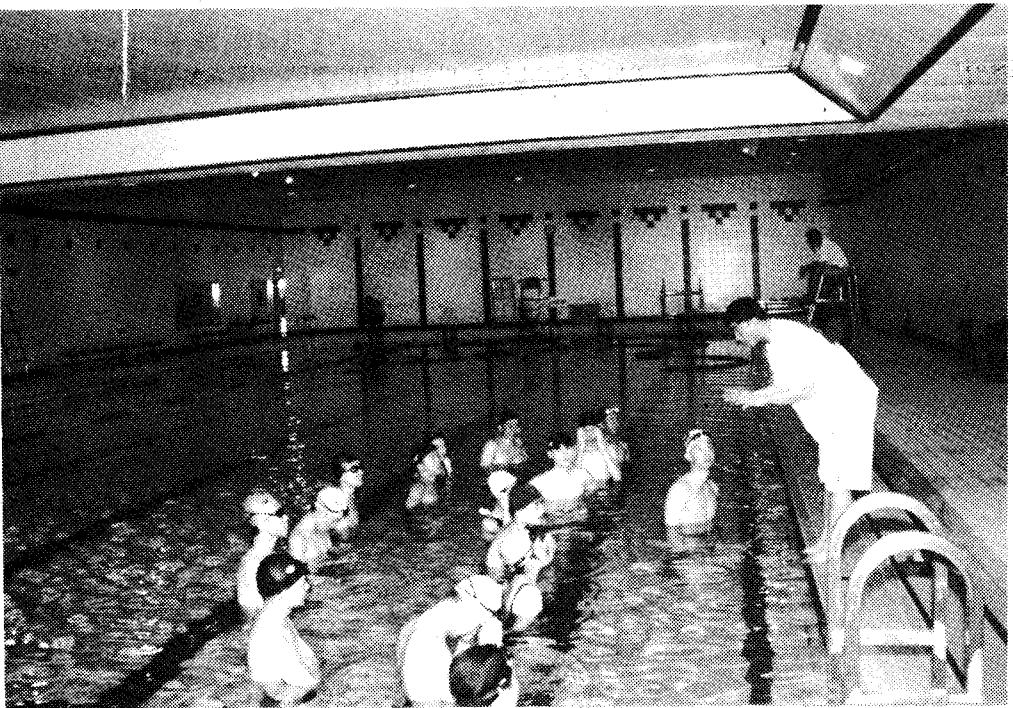
늘린 상태이다. 또 다른 코트를 만들고 싶지만, 장소가 너무 좁아 생각중이다. 개인에게도 운동기구 대여할 계획인가
개인대여는 관리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 하나 과포임이나 단대모임일 경우엔 기

실에 협조전을 보내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노천코트, 테니스장은 학생과 일반인 아무때나 사용할수 있는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테니스부에서 2개의 코트를 사용하면 2개는 일반학생이 쓰는 방향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것이다.

체육환경개선에 관한 다른 계획이 있는가
현재 체조장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운동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을 나무로 교체할 계획이다.

<사회부>



▲체육대학 지하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10여명의 학생들이 수영강사의 강의를 겸청하고 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우수한 현대식 시설을 자랑하는 수영장은 교내학생들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HP데스크젯은 생생-
동아리 표정도 생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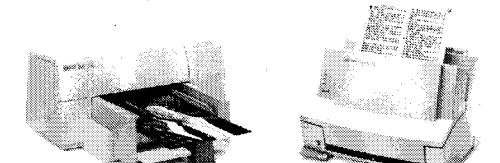


HP HEWLETT-PACKARD

사진처럼 생생한 컬러, 사진처럼 생생한 표정- HP데스크젯 동아리 사진 전시회

이 동아리가 좋을까. 저 동아리가 좋을까?
신입생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할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프린터, HP데스크젯이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마련했거든요. 각 동아리의 홍보 사진을 HP데스크젯으로 생생하게 출력해 전시하고 있죠. 서둘러 다녀가세요. 아울러 HP데스크젯 등 푸짐한 선물을 받을 기회를 드립니다.
■전시 일시: 97년 3월 17일 ~ 3월 19일
■전시 장소: 노천주년

HP데스크젯 무료증정 기회!
새봄 새학기, 뭐 좋은 일 없을까 고민하셨던가요?
본 광고 하단의 응모권을 잘라 기재한 후, 동아리 사진 전시회에 마련된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행운이 찾아옵니다. 추첨일에 학생증을 지참하고 꼭 참석하셔도 잊지마세요.
■추첨행사: 3월 19일 오후 3시, 노천주년
■상품: 1등(1명) HP데스크젯 692K 1대
2등(5명) 패시지제 3등(20명) 스포츠용 패시지제자주 하나



HP데스크젯 692K
포토와 일반용, 고화질 출력
사진처럼 생생한 No.1 컬러프린팅 기술
·속도출력 5ppm, 컬러출력 1.7ppm

HP레이저젯 5L
HP 1/8" 폭용도 일반용 1/8" 폭용도
·300dpi의 해상도, 7급의 해상도까지 제공
·600x600dpi, 고 해상도 구현

한국휴렛팩커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고객지원센터: 3270-0720